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처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장영은¹ · 박병준²

¹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²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Perceived Stress, Coping of Nursing Students Effect on
Academic Self-Efficacy

Young Eun, Jang¹ · Byung Jun, Park²

¹*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Health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7권 제3호 2023년 9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7, No. 3, September. 2023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처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장영은¹ · 박병준²

¹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²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Perceived Stress, Coping of Nursing Students Effect on Academic Self-Efficacy

Young Eun, Jang¹ · Byung Jun, Park²

¹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Health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at factors influence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the nursing students exposed to a contactless classroom environment due to COVID-19. **Method** :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after grasping the perceived stress and degree of coping of the nursing student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bject's perceived stress was 1.80 ± 0.62 points, coping ability was 2.84 ± 0.22 points, and academic self-efficacy was 3.16 ± 0.53 points on average.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 are perceived stress, coping, and personality type. The lower the perceived stress and the more coping strategies are used, the higher the academic self-efficacy. As for personality types, extroverted, intuitive types and judging type have high academic self-efficacy. In addition, the judging type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academic self-efficacy.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36.9%.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improve academic self-effica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xtracurricular programs that improve stress management, coping skills, and personality strengths. Continuous management from freshmen to graduates should be carried out, which will help nursing students who will grow into nurses in the future understand and manage themselves.

Key words : Stress, Coping, Self-efficacy, Nursing Students, Judg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점관리, 스펙관리, 인간관계 관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국내 방역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수업을 포함한 교육시스템도 대부분의 교내외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중단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2].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인터넷 환경문제로 인한 수업참여의 어려움이나 과도한 과제물 등이 큰 부담이 되었고 피드백 없는 일방향 수업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3]. 이 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평가방식 등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비대면 수업에서 불충분한 준비와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었다[3]. 비대면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과정 속에 학생들은 비자발적으로 고립되게 되었고 과거에 당연하게 여기던 교우관계나 인간관계의 확장, 다양한 경험을 쌓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지속되며 스트레스는 가중되었다[4].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실습기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임상현장실습이 중단되게 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5].

이처럼 스트레스가 장시간 지속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기전이 대처이다[6].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게 만든다고 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성공적인 대처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7].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향후 간호대상자들을 돌보아야 하며 그들이 질병 관련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

을 길러주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 스스로가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5]. Carver[8]에 따르면 대처전략에는 문제중심 대처, 감정중심 대처, 역기능적 대처 등 총 14개의 대처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대처행동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문제중심 대처전략 중 계획하기(planning), 적극적 대처(active coping)와 도구적 지지(use of instrumental support)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대처행동에는 역기능적 대처전략 중 부정(denial), 감정표현(venting), 자책(self-blame), 물질사용(substance use)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이 결과가 대학생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수행과 관련하여 학습시간이나 방법을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주어진 학업량이나 과제를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10]. 대학생들이 경험한 비대면 수업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암기, 주의집중, 문제해결 시간의 증가 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모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저해하는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의 여파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이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11], 주 원인으로 학업과 관련된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목되고 있다[6].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12],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대학생들의 필수 과업인 학업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유형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고, 성격유형이 스트레스나 대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

기간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S시와 D시 소재 간호대학 학생으로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목적 이해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

=.05, 효과크기 (p)=.15, 검정력($1-\beta$)=.95, 예측변수 3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위한 표본크기를 산출하여 119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은 낮은 회수율을 고려하여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최종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의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156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지각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Cohen 등[1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Lee 등[14]이 번안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긍정 문항과 4개의 부정 문항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이며, 문항별 4점 Likert 척도로 1점 ‘거의 없었다’부터 4점 ‘매우 자주 있었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정 문항인 4, 5, 7, 8은 역문항으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의 정도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6 이었다.

2) 대처

본 연구에서는 Carver[8]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간소화 척도를 Joo[15]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개 항목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사용 안함’부터 4점 ‘많이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4 이었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rk[16]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4)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학년, 혈액형, 성격유형(MBTI 4가지 양극적 선호경향), 온라인 학습환경(기기,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 대학의 대상자에게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 전에 연구의 필요성, 목적, 진행 절차, 자료의 익명성, 개인정보보호, 연구 참여 중도 철회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연구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의 경우 서명을 받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는 코드를 부여해 연구자만 열람하였으며,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평균 24.01 ± 6.80 세 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23명(14.7%), 여학생이 133명(85.3%)이었다. MBTI의 성격유형 분류에 따른 성격유형 중 내향성은 99명(63.5%), 외향성 57명(36.5%)이었고, 감각형은 82명(52.6%), 직관형 74명(47.4%)이었으며, 사고형 58명(37.2%), 감정형 98명(62.8%), 판단형 62명(39.7%), 인식형 94명(60.3%)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환경은 기기는 51명(32.7%)이 보통, 76명(48.7%)이 좋다고 하였고, 8명(5.1%)은 나쁘다고 하였다. 온라인 학습환경 공간은 57명(36.5%)이 보통이고, 68명(43.6%)은 좋다고 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table 2에 기술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1.80 ± 0.62 점 이고, 대처는 4점 만점에 2.84 ± 0.22 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16 ± 0.53 점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table 3과 같다. 성격유형에 따라 내향형과 외향형은 지각된 스트레스($t=3.90$, $p<.001$), 대처($t=-3.32$,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t=-5.1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성격이 외향형인 학생이 지각된 스트레스는 낮고, 대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았다. 성격유형에 따라 감각형과 직관형은 대처($t=-1.10$, $p=.027$), 학업적 자기효능감($t=-2.27$, $p=.02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직관형인 학생이 대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 = 156)

Variables		n	%	M±SD (Max~Min)
Age				24.01±6.80 (19~56)
Gender	Male	23	14.7	
	Female	133	85.3	
Grade year	Sophomore	32	20.5	
	Junior	84	53.8	
	Senior	40	25.6	
Blood type	Type A	63	40.4	
	Type B	34	21.8	
	Type O	41	26.3	
	Type AB	18	11.5	
Personality type	Direction of energy	Introversion (I)	99	63.5
		Extroversion (E)	57	36.5
	Recognition	Sensing (S)	82	52.6
		Intuition (N)	74	47.4
	Judgement	Thinking (T)	58	37.2
		Feeling (F)	98	62.8
	Performance	Judging (J)	62	39.7
		Perceiving (P)	94	60.3
Online learning environment (device)		Bad	8	5.1
		Average	51	32.7
		Good	76	48.7
		Very good	21	13.5
Online learning environment (space)		Bad	13	8.3
		Average	57	36.5
		Good	68	43.6
		Very good	18	11.5

Table 2. Level of Perceived Stress, Coping, Academic Self-efficacy

(N = 156)

Variables (Range)	Mean±SD	Min~Max
Perceived stress (1~4)	1.80±0.62	1.00~3.70
Coping (1~4)	2.84±0.22	2.11~3.57
Academic self-efficacy (1~5)	3.16±0.53	1.50~4.43

이 높았다. 판단형과 인식형은 대처($t=2.81, p=.006$), 학업적 자기효능감($t=2.87,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판단형의 학생이 대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온라인 학습환경 기기부분은 지각된 스트레스($F=5.55, p=.005$)와 학업적 자기효능감($F=10.6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는데, 온라인 학습환경 기기가 나쁨이 좋은 것보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높았고, 온라인 학습환경 기기의 나쁨이 좋은 것이나 보통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낮았다. 온라인 학습환경 공간도 지각된 스트레스($F=4.13, p=.018$)와 학업적 자기효능감($F=5.45,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온

Table 3. Perceived Stress, Cop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156)

Variables		n	Perceived stress			Coping			Academic self-efficacy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Female	133	1.84±0.60	-1.87	.063	2.84±0.24	0.01	.992	3.16±0.50	0.10	.924
	Male	23	1.58±0.71			2.84±0.21			3.17±0.68		
Grade year	Sophomore	32	1.70±0.62	1.80	.169	2.86±0.19	0.11	.892	3.33±0.47	2.07	.130
	Junior	84	1.89±0.61			2.84±0.23			3.11±0.54		
	Senior	40	1.70±0.63			2.84±0.19			3.15±0.55		
Blood type	Type A	63	1.82±0.61	0.22	.882	2.84±0.20	0.30	.822	3.13±0.43	0.19	.904
	Type B	34	1.84±0.67			2.83±0.22			3.17±0.59		
	Type O	41	1.81±0.63			2.84±0.23			3.19±0.54		
	Type AB	18	1.69±0.58			2.89±0.25			3.21±0.70		
Personality type	Introversion (I)	99	1.94±0.59	3.90	<.001	2.80±0.21	-3.32	.001	3.01±0.53	-5.17	<.001
	Extroversion (E)	57	1.56±0.60			2.92±0.20			3.43±0.42		
Personality type	Sensing (S)	82	1.80±0.58	-0.20	.997	2.83±0.20	-1.10	.027	3.07±0.49	-2.27	.025
	Intuition (N)	74	1.80±0.66			2.86±0.23			3.26±0.56		
Personality type	Thinking (T)	58	1.77±0.55	-0.49	.627	2.80±0.18	-1.862	.065	3.20±0.57	0.58	.560
	Feeling (F)	98	1.82±0.66			2.87±0.23			3.15±0.51		
Personality type	Judging (J)	62	1.75±0.60	-0.85	.394	2.90±0.22	2.81	.006	3.31±0.52	2.87	.005
	Perceiving (P)	94	1.84±0.63			2.81±0.21			3.07±0.52		
Online learning environment (device)	Bad ^a	8	2.35±0.52	5.55	.005 (a>c)	2.72±0.14	1.49	.228	2.39±0.36	10.60	<.001 (a<b,c)
	Average ^b	51	1.91±0.60			2.84±0.18			3.15±0.56		
	Good ^c	97	1.70±0.61			2.86±0.23			3.23±0.47		
Online learning environment (space)	Bad ^a	13	2.22±0.73	4.13	.018 (a>c)	2.80±0.19	1.53	.221	2.71±0.63	5.45	.005 (a<b,c)
	Average ^b	57	1.84±0.58			2.81±0.23			3.19±0.52		
	Good ^c	86	1.72±0.61			2.87±0.21			3.22±0.49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Coping, Academic Self-efficacy (N = 156)

Variables	Perceived stress r(p)	Coping r(p)	Academic self-efficacy r(p)
Perceived stress	1	-.37 (<.001)	-.51 (<.001)
Coping		1	.40 (<.001)
Academic self-efficacy			1

라인 학습환경 공간의 나쁨이 좋은 것보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높았고, 온라인 학습환경 공간의 나쁨이 좋은 것이나 보통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낮았다.

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대처($r=-.37$, p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elf-efficacy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β	t	p	Tolerance	VIF
Academic self-efficacy	Perceived stress	-0.39	-5.46	<.001	0.82	1.23
	Coping	0.16	2.29	.024	0.80	1.24
	Personality type (Extroversion) [*]	0.18	-2.64	.009	0.85	1.17
	Personality type (Intuition) [†]	0.15	-2.23	.027	0.96	1.05
	Personality type (Judging) [‡]	1.15	2.20	.029	0.93	1.07
adj R^2 =.369, F=19.15 (p <.001)						
Durbin-Watson = 2.20						

^{*}Reference group: Introversion[†]Reference group: Sensing[‡]Reference group: Perceiving

<.001)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r=-.51$,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대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4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Table 5).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성격유형 중 내향/외향, 감각/직관, 판단/인식형의 3가지 일반적 특성을 더미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은 검토한 결과 분산확대지수(VIF)는 1.07~1.24로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결과 2.20으로 2 근처에 있기에 종속변수 간 자기상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beta=-0.39$, $p<.001$)와 대처($\beta=0.16$, $p=.024$)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성격유형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따라서는

외향형($\beta=0.18$, $p=.009$), 직관형($\beta=0.15$, $p=.027$), 판단형($\beta=1.15$, $p=.029$)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내향형에 비해 외향형이, 감각형에 비해 직관형이, 인식형에 비해 판단형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성격유형 중 이행형(performance type)의 판단형(judging) 성격이며, 다음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외향형 성격, 대처, 직관형 성격 순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6.9%이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지각된 스트레스의 정도와 대처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처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1.80 ± 0.62 점 이었다. 이는 Nam 등[17]이 간호대학생에게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지각된 스트레스의 점수인 1.90 ± 0.57 점과 유사하였다. Nam 등[17]은 간호대

학생 저학년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대학적응과 전공기초 수업의 부담 및 교내실습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높다고 설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스트레스의 정도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들의 배수 수업, 교내실습, 임상현장실습, 중간고사 등의 수업과 실습 및 시험의 다양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연구의 기간이나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학생들 개개인의 성격이나 환경 등이 고려되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처는 4점 만점에 2.84 ± 0.22 점으로 나타나 Lee와 Kwak[18]의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한 결과에서 보고한 2.88 ± 0.21 점의 점수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대처는 효율성과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모든 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19], 사회 환경 뿐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20].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 학생에 비해 다양한 현장에서 실습을 하며 이러한 환경은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대처는 대학생활 초기부터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서의 직업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에 대학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대처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대처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16 ± 0.53 점으로 보고되어 Hwang의 연구[21]에서 보고한 3.09 ± 0.48 의 점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과정에서 시간과 방법을 조절하여 성공적인 학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10],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특징은 예상되는 학업 상황에서는 계획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은 높지만 조절가능하고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황만을 수용하고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는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21].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성격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Jo 등

[22]의 연구에서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학업적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향상시키는 것이 전문적인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23].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활동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처 및 일반적 특성의 성격유형이 영향하였다. Seong[23]의 연구에서 설명한 취업스트레스와 Lee 등[24]의 연구에서 설명한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동일하게,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았고, Choi와 Lim[25]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트레스와 대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유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하겠다. 이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의 성격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의 성격유형은 에너지 방향을 의미하는 성향 중 외향형과, 인식을 의미하는 성향 중 직관형이 그리고 이행을 의미하는 성향에서는 판단형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격유형 중 이행형의 판단형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im[26]의 선행연구의 외향형 성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과 동일한 결과이며, Lee[27]의 선행연구에서 판단형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은 것과도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처럼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에는 학생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모색이 요구되며 문제해결력,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많이 시행되는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 교수자는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인식하고,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이 교육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처 및 일반적 특성의 성격유형 중 외향형, 직관형, 판단형을 확인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처전략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 또한, 성격유형에 따라 판단형 성격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므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을 학습하면서 다양한 실습과 수업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결여가 나타난다. 그리고 성격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되어야 한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뿐 아니라 성격의 강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코칭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신입생부터 졸업시까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의 자신감 증진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1. Jun JY, Kim YH, Kim EK, Yoo SH. Types of college student stress in the COVID-19 situation using the methodology Q.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1;28(10):427-451. <https://doi.org/10.21509/KJYS.2021.10.28.10.427>
2. Hong SH.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clinical performance capability on learning immersion during simulated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Study on Learner-Centirc Curricular Education. 2021;21(1):741-755.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1.741>
3. Kim JM, Son JH.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due to online classes on non-routine difficulties - mediating effect of the fear of COVID-19. Law and Human Rights Education Research. 2021;14(1):83-107. <https://doi.org/10.35881/HLER.2021.14.1.4>
4. Choi AR. The effect of COVID-19 stress on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1;28(12):89-107. <https://doi.org/10.21509/KJYS.2021.12.28.12.89>
5. Aslan H, Pekince H. Nursing students' views on the COVID-19 pandemic and their percieved stress level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2021;7(2):695-701. <https://doi.org/10.1111/ppc.12597>
6. Yasmin H, Khalil S, Mazhar R. COVID 19: Stress management among students and its impact on their effective learning.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Education Journal. 2020;4(2):65-74.
7. Polizzi C, Lynn SJ, Perry A. Stress and coping in the time of COVID-19: pathways to resilience and recovery. Clinical Neuropsychiatry. 2020;17(2):59-62. <https://doi.org/10.36131/CN20200204>
8. Carver CS.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too long: Consider the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000;7(2):131-136.

- 1997;4(1):92-100.
9. El-Monshed AH, El-Adl AA, Ali AS, Loutfy A. University students under lockdown, the psychosocial effects and coping strategies during COVID-19 pandemic: a cross sectional study in Egypt.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2022;70(3):679-690. <https://doi.org/10.1080/07448481.2021.1891086>
10. Lee SJ, Kim JK, Kim WJ.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Study on Learner-Centric Curricular Education*. 2020;20(14):1251-1265.
11. Oducado RF, Estoque H. Online learning in nursing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ress, satisfac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21;4(2):143-153. <https://doi.org/10.30994/jnp.v4i2.128>
12. Jamil NI, Yoke SK, Him NC. Assessing undergraduate student's perceived stress during open distance learning 2021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Sciences (AiDAS), 2021 September 08-09; IPOH, Malaysia; p. N/A. <https://doi.org/10.1109/AiDAS53897.2021.9574172>
13. Cohen S, Kamarck T, Mermelstein R.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3;24(4):385-396. <https://doi.org/10.2307/2136404>
14. Lee JH, Shin CM, Koh YH, Yim JH, Joh SH, Kim SH, et al. A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tress perception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2012; 20(2):127-134.
15. Joo SA. Study on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mong the subway attendants who experienced fatal accidents in the line of duty [master's thesis]. Seoul:Ewha Womans University; 2009. p. 19-20.
16. Kim AY, Park IY. The academic self-efficac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Pedagogical Research*. 2001;39(1):95-123.
17. Nam JH, Park HS, The impacts of perceived stress and self-compassion on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6(1): 67-77.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1.67>
18. Lee JE, Kwak HW.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11):527-537.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1.527>
19. Seaward BL. Managing stress; principle and strategies for health and well-being. 7th ed. US: Jone and Bartlett learning; 2012. p. 208-209.
20. Lee YR, Kim SH, Joo MS. Stress level, stress coping style and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the MBTI personality typ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2):172-182.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72>
21. Hwang SA.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ollege student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2021;9(2):73-85. <https://doi.org/10.17333/JKSSN.2021.9.2.73>
22. Jo LK, Koh HS, Park SH. Training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MBTI psychological preferences : case study of students in child educare teacher education institute attached to P university.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3;83:103-124.
23. Seong JA. The i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8;2(4):25-35.

24. Lee JK, Jang KD, Kim JK. The effects of college life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Edutainment*. 2023;5(2):151-161. <https://doi.org/10.36237/koedus.5.2.151>
 25. Choi YJ, Lim H.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academic stress, stress cop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burnout in student-athletes. *Sport Science*. 2021;39(1):157-164. <https://doi.org/10.46394/ISS.39.1.18>
 26. Lim SR. Relation of personality preference,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cy, test anxiety in selecti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0;10(6):1025-1035.
 27. Lee JY. MBTI personality type,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style of nursing students. *Stress Research*. 2010;18(3):219-227.
-